

치 사

결실의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과 향기로움 속에서, 조화로운 화음과 자비로운 소리가 넘치는 『2014년 전국불교합창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전하는 한국불교연합합창단은 우리 불교의 꽃이자 이웃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성실한 봉사자입니다. 더불어 참된 음성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밝히려는 마음가짐 또한 정진의 의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실천이라는 신행의 과정 속에서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혜롭게 쌓아온 신심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이러한 용기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참다운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나누어 하나가 된다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보이지 않는 수행의 단계를 거쳤으며, 이는 다시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진실한 소리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다가감 속에서 저마다의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합의 소리가 사바세계를 어우르는 법향이 되어, 모든 중생의 고뇌를 맑게 씻어 주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향기로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8년 11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